

## 서울 모현 가정호스피스

# 봄 햇살을 닮은 해맑은 사람들

죽음 앞에 인간은 한없이 나약해진다. 두려움과 공포, 마지막 희망이 필요한 사람들. 그들의 마지막 여정을 조건 없이 진심으로 보살피고 배려하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호스피스다. 많은 사람들에게 무료로 희망을 배달하고 있는 서울 모현 가정호스피스, 그곳에 가면 따뜻하고 포근한 희망을 만날 수 있다. 에디터 김은섭 저#협조 서울모현가정호스피스

호스피스(hospice)는 라틴어의 어원인 Hospes(손님), 또는 Hospitum(손님접대, 손님을 맞이하는 장소)에서 발생한 단어로 주인과 손님이 상호간에 서로 돌보는 것을 상징한다. 원래 중세의 호스피스는 순례자나 여행자가 하룻밤 쉬어가던 휴식처로 새 삶을 찾는 피난처였으나 근대에 와서 임종환자를 보살피는 곳의 개념이 강해졌고, 오늘날에는 불치병뿐만 아니라 임종이 가까운 환자들을 삶을 배려하고 보다 질적으로 향상시켜 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간호 공동체를 의미하기에 이르렀다.

### 34년, 아름다운 무료봉사의 외길

독립형 가정호스피스인 모현호스피스는 천주교 '마리아의작은자매회' 유지재단의 분원으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수녀가 중심이 되어 지난 1987년에 서울에 첫 등지를 튼 이래 2010년 현재까지 2천 명이 넘는 환자의 가정을 방문, 봉사를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현재 서울과 경기 일부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말기 암환자들을 방문해 육체적, 심리적, 사회적 도움을 주고 있으며, 모든 서비스는 무료로 운영되고 있다.





사실 모현호스피스에서 오랜 시간 해온 일은 봉사라기보다 헌신에 가깝다. 임종을 앞둔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말기 환자들 의가정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통증과 증상을 조절하며, 환자 와 가족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진심을 담아 소통하고 배려한다. 그뿐 아니다. 의료물품과 기구를 대여해주기도 하고, 사별 가족들을 돌보는 일에도 소홀함이 없다.

2주에 한 번씩 환자와 가족들을 기관으로 초청하는 데이케어 (Day Care)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데이케어는 가정에 있는 환자들을 위한 낮 병동, 즉 주간보호를 말한다. 환자들은 데이케어 프로그램을 통해 미술치료와 음악치료, 아로마테라피, 요리, 소풍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 늘 한결같은 호스피스와 자원봉사자

모현호스피스는 상담이 접수되면 1차로 전화상담을 진행한 후 팀 미팅을 통해 방문을 결정하게 되며, 첫 방문은 의사와 담당간호사, 사회복지사가 직접 가정으로 방문하고, 이후에는 응급상황을 제외하고 주 1회 정기적인 방문을 진행하고 있다. 환자가 평화롭게 임종을 맞을 때까지 모든 관리가 신중하게 진행되는데 통증 완화와 증상 관리를 위해 환자 및 가족을 상담하며, 환자를 위해서 공기 침대, 산소 발생기, 휠체어 등의 의료 기구를 대여하고, 이·미용 봉사와 차량 봉사도 병행하고 있다. 또한 사별가족의 치유를 위한 친목모임을 연 2회 진행함으로써 사별 후 관리에도 애정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모현호스피스의 이러한 헌신에는 자원봉사자의 힘도 크다. 현재 월 40명 정도의 자원봉사자가 다양한 차량지원에서 이·미용, 주방 봉사에 이르기까지 힘을 싣고 있으며, 무료로 운영되

는 모든 호스피스 서비스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후원회원들의 후원물품과 후원금 지원 역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편이라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한다.

내일이면 늦을 지도 모르는, 죽음 앞에서 나약해지고 무력함을 느끼는 사람들의 벗이 되어 죽음의 길을 함께 준비하고, 그 마지막 막을 조금이나마 돕기 위해 오늘을 준비한다는 모현의 호스피스들, 그들이 마지막 눈을 감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따뜻한 위로의 미소가 유난히 맑고 눈부실 것 같은 상상은 나만의 것일까.

#### 천상의미소와의 만남

### 내 어머니의 임종을 지켜드리며...

호스피스 김은배수녀님

약 8년 정도 중풍으로 고생을 하셨던 어머니는 삶에 대한 애착이 남 다르셨습니다. 어느 날 환자방문 중에 가족들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가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전화를 받고도 저는 위기를 잘 넘기면 다시 괜찮아 지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고비를 여러 번 넘기셨기에 가족 모두는 어머니가 다시 일어나실 거라고 막연한 기대를 하며 그날 밤 어머니 주위로 모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머니의 임종을 지키면서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만나는 환자분들이 죽음을 통해 내게 많은 힘과 용기를 주고 떠난 것을 알고 있었고 자신감도 있었지만, 막상 어머니의 죽음을 대해야 한다는 것은 내게 더 많은 용기와 힘을 필요로 했습니다.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건넸던 수많은 이론상의 말들이 정작 내겐 해당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침묵의 시간, 어떻게 보내드려야 할지 마음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가슴이 아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어머니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가느다랗게 떨리는 눈, 옅은 미소... 어머니는 당신의 마지막을 함께 한 지식들로 인해 외롭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전, 그 눈망울에서 삶의 또 다른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오늘도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외롭고 가느다란 손이 그래서, 한없이 소중하고 감사합니다.